

차상찬의 소년운동을 통한 춘천 ‘어린이 수도’ 도시 브랜딩 전략

ChunCheon's of Children's Capital City Branding Strategy through
the Succession of Cha Sang-chan's Juvenile Activities

김경희*

국문요약 2022년 강원도는 춘천을 ‘어린이 수도’로 선포하였다. 춘천은 2022년 레고랜드 개관과 KT&G 상상마당, 인형극장, 애니메이션 박물관, 국립춘천어린이박물관 등으로 ‘어린이’ 친화적인 공간구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춘천이 ‘어린이 수도’로서의 공간성과 더불어 역사문화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차상찬의 소년운동을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차상찬의 소년운동 활동 가운데 어린이날 선언, 세계아동예술전람회, 명승투표기획을 통해 그의 사상을 계승하고 보존할 수 있는 체험길을 제안하였다. 공치천에 위치한 차상찬 동상을 출발하여 춘천시립청소년도서관, 레고랜드, 춘천인형극장을 연결하는 <봄내청오길과 어린이선언길>이 그것이다. 차상찬 동상에서 차상찬을 추모하고 차상찬 문고실에서 책을 읽으면서 그의 사상을 이해하고 춘천인형극장에서 일대기를 공연으로 만나면서 차상찬의 정신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게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차상찬의 소년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현대화하여 춘천이 ‘어린이 수도’로서 어린이문화를 꽃피우는 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핵심어 차상찬, 소년운동, 춘천, 어린이 수도, 도시브랜딩, 봄내 청오길, 어린이 선언길, 연결

* 가천대학교 문화유산역사연구소 연구원.

차례

1. 문제 제기
2. 종합 축제 어린이날 기획
3. 지역문화답사와 어린이의 참여
4. 〈봄내청오길〉과 〈어린이 선언길〉
5. 마무리와 과제

1. 문제 제기

2022년 강원도는 레고랜드가 개장된 춘천을 ‘어린이 수도’로 공식 선포하고 어린이를 위한 도시 브랜드⁰¹를 구축하고 있다. 레고랜드는 KT&G 상상마당, 인형극장, 애니메이션 박물관, 국립춘천어린이박물관과 더불어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공간으로 상징된다. 레고는 ‘Leg Godt’라는 덴마크어로 ‘Play well’의 의미를 지닌다. 전 생애주기에서 가장 놀이와 관련이 깊은 연령대는 바로 어린이시기일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OECD 국가 중 행복지수가 38개국 가운데 35위로 최하위권을 기록⁰²하고 있다. 한국의 〈아동기본법〉은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 생명, 생존 및 발달의 권리, 차별별, 아동의 견해 존중 등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원칙을 담아 아동을 존엄한 권리 주체⁰³로 보고 있지만 여

01 도시브랜드는 특정 도시가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 역사적 특징, 문화적 자산 등을 바탕으로 다른 도시와 차별적 경쟁력을 갖기 위해 사용하는 도시의 명칭, 상징물, 디자인 혹은 그들의 결합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수태, 「도시브랜드 디자인이 국가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과 도시브랜드 디자인 방향에 관한 연구」, 『브랜드디자인학연구』 6(1), 한국브랜드디자인학회, 2008, 58쪽.

02 유엔지속가능한 발전해법네트워크가 국제 행복의 날을 맞아 발간한 〈세계행복보고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아동과 청소년의 일상 속 시간 균형을 분석한 ‘2022 아동행복지수 보고서’를 발표했다. 11월 22일부터 12월 29일까지 초등학교 5학년~고등학교 2학년 2천231명을 대상으로 한 ‘2023 아동행복지수’ 조사에서 86.9%인 1천940명의 행복지수가 ‘하(下)’로 집계됐다. 올해 아동 행복지수는 4점 만점에 1.66점으로 2021년(1.68점), 2022년(1.70점)과 비슷했다. 「집콕·혼밥·운동부족 아동청소년 87% 행복지수 하」, 『연합뉴스』, 2023년 5월 4일자.)

03 아동기본법을 만드는 어른들을 위한 안내서 세이버더칠드런 <https://www.sc.or.kr/childrenact>

전히 아동이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받는 일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간혹 부모는 아동을 살해⁰⁴하거나 학대하는 일의 주범이 되기도 한다.

강원도가 춘천을 ‘어린이 수도’로 선포한 만큼, 춘천이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문화와 자산을 역사적으로 조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2023년은 『어린이』 잡지 창간 100주년과 동시에 어린이 해방선언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뜻깊은 두 가지 의미의 100주년을 맞이하여 자랑스러운 강원문화인물로 선정된 ‘차상찬’의 행적을 통해, ‘어린이 수도’ 춘천의 도시 브랜드에 적합한 콘텐츠를 현대에 복원해 보고자 한다.

도시 브랜딩은 도시를 총체적으로 나타내는 브랜드를 활용하여 도시와 관련된 모든 요소들이 하나의 실체로 식별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줌으로써 도시의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도시간 차별화를 이룰 수 있는 강력한 자산으로 인식⁰⁵되고 있다. 도시의 정체성을 브랜드화하여 도시의 특색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도시의 물적 토대와 더불어 역사문화적 자산과 정신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청오 차상찬¹⁸⁸⁷⁻¹⁹⁴⁶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강원도에서 차상찬이 호명된 것은 2000년대 무렵이다. 2004년 이달의 자랑스런 강원문화인물에 선정⁰⁶되고 2005년 관광명소 발굴 자원화 사업에 권진규, 박수근, 차상찬, 황철, 박영희 등 근현대 문화인물 5명에 대한 재조명이 시작되었다. 2006년 ‘차상찬 선생 선양 심포지엄이 열리고, 2012년 차상찬 특별전시와 어린이

04 「아내 살해 후 자녀를 안고 투신한 가장, 7세 아들과 함께 숨진 30대 엄마」, 『서울신문』, 2023년 5월 3일자.

05 서구원·배상승, 『도시마케팅』, 커뮤니케이션스북스, 2005.

06 강원도민일보사와 문화원연합회 도지회가 공동으로 선정해 얼을 기리고 있는 '2004년도 이달의 자랑스런 강원문화인물'이 선정되었다. 「2003 이달의 강원문화인물」, 『강원도민일보』, 2003년 12월 31일자.

날을 기념하면서 차상찬의 역할과 의미에 대한 논의가 시작⁰⁷되었다. 2015년 청오차상찬 선생 동상이 제막되고 2016년 청오 차상찬 서거 70주년 기념 학술대회와 청오 차상찬 전집작업도 진행되었다. 2018년 전집 출간을 시작으로 현재 7권이 집대성되고 2022년 학술대회를 통하여 차상찬 소년운동이 집중조명 되었다. 지금까지 쌓아 온 차상찬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춘천지역의 문화적 자산을 연결시켜 차상찬의 정신을 이어 춘천이 추구하는 ‘어린이 수도’ 도시 브랜딩 전략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종합 축제 어린이날 기획

천도교 소년회는 천도교청년회 포덕부 산하 ‘소년부’에서 출발하여 1921년 5월 1일 창립되었다. 차상찬은 1922년 4월 제2기 지도위원 차상찬, 김기전, 방정환, 구중희, 백달성으로 합류하였다. 1922년 5월 1일 ‘항상 십 년 후의 조선을 생각하라’는 외침이 울려 퍼졌다.

일. 어린 사람을 헛말로 속이지 말아주십시오.

이. 어린 사람을 늘 가까이 하시고 자주 이야기하여 주십시오.

삼. 어린 사람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부드럽게 하여 주십시오.

사. 어린 사람에게 수면과 운동을 충분히 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 이발이나 목욕 같은 것을 때 맞춰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육. 나쁜 구경을 시키지 마시고 동물원에 자주 보내주십시오.

07 최경식, 「특별기고 어린이날과 청오 차상찬」, 『강원도민일보』, 2012년 5월 4일자.

칠, 장가와 시집 보낼 생각 마시고 사람답게만 하여 주십시오.⁰⁸

자동차대와 창가대로 나뉘어 천도교소년회 주최의 소년보호운동이 일어났다. 오후 1시에 탑골공원, 전동, 교동, 광화문 각처에서 창가를 하며 취지선 언서를 나누어 주며 행진하였다. 해를 거듭하면서 어린이날 행사는 더욱 중요해졌다. '학대를 받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조선의 어린이를 위하여 새로 작성된 어린이날'은 어린이의 거룩한 명절로 오로지 그들만의 세계를 만들어갔다. 어린이날이 시작되는 첫날에 경성을 비롯하여 전조선 각지의 주요한 곳에 일만장의 포스터를 부치고 전조선 134곳 소년회의 회원 전체가 총출동하여 30만 장의 선전지를 각 가정과 일반인에게 나누어주고 천도교당과 지방 각지에서 놀이마당이 시작되었다. 이 때, 준비위원으로 방정환, 김기전, 차상찬이 함께하였다.

천도교는 청년운동과 농민운동을 중심으로 운동의 범위를 확장 시키는 가운데, 방정환과 차상찬은 소년운동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활동을 펼쳐나가기 시작했다. 방정환 선생은 천도교소년회 조직시기인 1921년부터 이듬해까지도 일본에 머물거나 오가면서 어린이날 제정과 어린이운동을 주도하고 차상찬 선생이 1921년 3월 천도교청년회 실무담당인 간무를 맡고, 그해 5월 어린이날 제정까지 이어갔다. 방정환과 더불어 어린이날 제정과 실천을 위해 노력했던 인물인 차상찬의 역할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계승할 필요성이 있다.

이후의 어린이날의 준비에서도 방정환, 김기전, 이종린, 이두성, 김옥빈, 조철호, 심상덕, 차상찬 등이 참여하였다. 어린이날 축제를 서양의 크리스마스처럼 며칠 동안 이어서 즐겁게 놀도록 5월 1일부터 4일까지 프로그램을 마

08 「십년 후의 조선을 생각하라」, 『동아일보』, 1922년 5월 1일자.

련하였다.

- 1일 5월 1일 어린이 대회를 개최하여 가극 음악 등으로 밤이 깊도록 즐길
- 2일 5월 2일 어린이보호자대회를 개최하여 가극 등으로 즐기고 선전 강연을
함
- 3일 5월 3일 어린이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동화와 동요 선전하는 뜻으
로 낮에는 동화회 밤에는 동요회 개최, 음악회도 개최
- 4일 5월 4일 직업소년의 위안회로 어린이 야유회를 개최하고 그네뛰기, 씨름,
찢푸 등 재미있는 경기를 함⁰⁹

이러한 프로그램은 경성을 중심으로 전국의 소년회에 전파되어 즐거운 잔치가 전조선에서 진행되었다. 어린이를 위한 강연, 가극, 음악, 동화, 동요, 야유회와 민속놀이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이 지속되어 어린이의 취미와 호기심을 자극하고 함께 놀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이러한 복합문화 프로그램을 현대에도 살리고 어린이날 행사 기간을 늘려서 어린이가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09 「어린이날의 준비」, 『동아일보』, 1924년 4월 23일자.

3. 지역문화답사와 어린이의 참여

차상찬은 『개벽』 34호^{1923.4}부터 『개벽』 64호^{1925.12}까지 「조선문화 기본조사」¹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는 당시 일본의 <토지조사사업>과 조선사 연구, 조선문화 조사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각 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전반을 종합적으로 조사 소개하였다. 1923년 1월 『개벽』 31호에 「조선문화의 기본조사, 각도 도호의 간행」이라는 글을 시작으로 조선 답사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개벽』은 1925년 8월부터 돌연 발행 금지를 받은 이후 1926년 8월 통권 72호로 강제 폐간되었다. 정현숙은 “차상찬이 「조선문화의 기본조사」를 통해 각 지역의 청년회를 방문하여, 실태를 확인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사회운동의 주체로서 개벽사의 인적 네트워크를 견고히 하는 과정¹¹”으로 파악하였다. 『개벽』 잡지의 부침 속에 차상찬은 주변 잡지로 확장 혹은 전이를 도모한다. 『어린이』 잡지는 1926년 신년호에 새현상 「새현상 우리 지방명승 투표」를 야심차게 출발하게 되는데, 이는 『개벽』에서 주관하고 이끌어 온 「조선문화의 기본조사」와 무관하지 않다. 정현숙이 주목한 “『별건곤』의 ‘조선의 자랑호’에는 역사, 학문, 문화, 예술 등 여러 분야에서 민족적 자긍심을 제고시키는 90여 편의 글”¹²이 실려있다.

천도교 소년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방정환, 차상찬, 박달성과 『개벽』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선문화 기본조사」의 전국 답사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실제 「조선문화 기본조사」에 차상찬과 박달성이 핵심 참여자로 조선의 각지

10 청오차상찬 기념사업회 편, 『차상찬 전집』 1-7, 강원도민일보 출판국, 2018-2022.

11 정현숙, 「차상찬의 이동과 연대의 시간—『개벽』의 ‘조선 문화의 기본 조사’를 중심으로」, 『구보학보』24, 구보학회, 2020, 161쪽.

12 위의 글, 165쪽.

를 돌면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조선의 문화유산을 찾아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정신을 『어린이』 잡지로 확장 이전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개벽』과 『어린이』는 개벽사에서 주관해서 발행되는 잡지로 서로 광고를 실어주고 상호협력하면서 독자층을 확대해 나갔다.

○ 저의 아버지가 개벽(開闢)잡지를 보seyo. 곁에서 보니 어린이 특별호 광고가 있길래 그것을 자세히 보고 아버지께 말씀 하였던니 그것 좋은 것이라고 돈을 주셔서 이번부터 애독자가 되었습니다. 일찍 알지 못한 것이 한이 되어요. 어찌나 재미있는지요. (당진군 신평공보 심현구)¹³

위의 일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개벽』 잡지에 나온 『어린이』 광고를 본 어린이가 아버지께 직접 『어린이』를 구독하고 싶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1925년부터 『개벽』 잡지의 발행금지 처분과 1926년의 폐간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개벽』을 유지하기 위한 고군분투가 이루어졌다. 더불어 『개벽』의 정신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다른 잡지로 분산이 시급했다. 1926년 1월 『어린이』 4권1호의 「명승투표 대현상」과 개벽사와 『어린이』 집필진들의 만남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근하신년을 알리는 『어린이』 잡지 4권1호의 인사에서 주요 집필진과 함께 차상찬, 박달성, 그리고 개벽사의 건물을 소개하고 있다. 이는 편집후기에서 “이번 신년호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동경에 계신 색동회원 여러분과 경성에 계신 색동회 여러분의 글이 모두 모여 있습니다. 색동회 여러분이 특별한

13 「독자담화실」, 『어린이』 2권 4호, 1924, 44쪽.

새해 선물로 바쁘신 중에도 힘써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¹⁴”라고 남겨두었다. 더불어 「명승투표 대현상」이 시작되었다.

새현상

우리 지방명승 투표

삼천리三千里 금수강산! 우리 조선에는 경치 좋고 볼 만한 명승名勝이 많이 있습니다. 금강산이나 평양 대동강같이 이미 이름이 높아진 곳도 많지만, 아직 세상에 이름이 나지 않고도 좋은 명승이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선의 이 숨은 명승을 찾아내고 좀더 조선 땅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어린이」는 적지 않은 금전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이 계획을 세우고 이제 『여러분의 지방 명승』투표를 모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골에 넉넉히 자랑할만한 명승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투표용지에 적어서 투표하십시오. 전에 없던 특별상품을 드립니다.¹⁵

1926년 1월에 기획된 아심찬 기획인 「우리 지방 명승 투표」는 각 지역에 살고 있는 『어린이』 독자에게 조선 삼천리 강산의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관심을 불러왔다. 『어린이』 4권 2호의 투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명승투표 제1회 결과 발표

다각각 2월에 더 힘쓰십시오

신년호에 발표한 『명승투표』는 조선에서 처음 되는 계획이라 실로 인기가 평

14 「새해 편집을 마치고」, 『어린이』 4권1호, 1926, 54쪽.

15 『어린이』 4권 1호, 1926, 광고.

장하여 처처에 이 이야기요. 들어오느니 이 투표라. 참말로 굉장한 수효였습니다. 이대로 녀 달 동안 계속하면 놀라운 수효에 달할 것이겠습니다. 제1회 1월31일까지에 들어온 것만 추려서 개표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강원도 금강산 145표, 개성 박연폭포 145표, 안변 석왕사 138표

원산 명사십리 120표, 평양 대동강변 119표

(이상 오십 점 못 되는 곳은 모두 여기 쓰지 아니하고 투표는 잘 모아 두었습니다. 통무들과 더 힘쓰십시오.)

제1회 결과는 위와 같으나 2회, 3회의 결과는 도로 뒤죽박죽 어느 곳이 새로 1등이 될지 모르는 것이니 그것을 기다려 보는 데에 흥미가 있습니다.

금강산이나 박연폭포가 이번에 제일 많더라도 2회, 3회에 투표가 적으면 쑥 내려갈 것이요. 이번에 50점도 못 된 곳이라도 2회, 3회에 투표를 많이 하면 새로 1등, 2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힘써 동무를 많이 모으고 또 서로 약속하여 한 곳을 정해 가지고 투표를 많이 하도록 힘쓰십시오. 그리하기로 하고 다 같이 제2회 결과를 또 기다려 보십시오.¹⁶

이렇게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명승투표는 『어린이』 4권2호에 투표결과를 신고, 4권3호와 4권4호를 끝으로 4월 30일 투표를 마감한다는 공지를 낸다. 『어린이』 4권5호는 어린이날 특집으로 좀 일찍 나오게 되어 5월 1일에 어린이의 손에 받아 보게 되었다. 1926년 5월 1일 어린이날 행사는 순종의 승

16 『어린이』 4권2호, 1926, 56~57쪽.

하로 모든 계획이 중단되고 묵상하는 것으로 대체되었다. 음력 5월 5일로 연기되었지만 인산일궤와 겹쳐 음력 단오날로 다시 옮겼으나 진행되지 못했다. 『어린이』 잡지에서도 5월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투표 마감인 4월 31일보다 미리 잡지를 만든 탓에 4월 투표 결과를 반영하지 못하고 <명승투표>는 종료되고 말았다.

박달성 선생님은 시골 출장 가셨지요, 신선생님은 앓으시지요, 차선생님은 개벽 원고 때문에 댁에만 계시지요, 방선생님은 댁을 옮기게 되셨다고 날마다 집주름¹⁷과만 다니시지요. 어린이 6월호가 어찌 되나 하였더니 그래도 방선생님 집도 못 구하고 다시 덤비셔서 여러 날 두고 애쓰시더니 되기는 되었으나 좀 늦어져서 인제야 나오신 것이 이 책이십니다.¹⁸

6월에 나온 『어린이』 잡지의 편집실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주요 집필진인 방정환, 차상찬, 박달성, 신영철의 사연들이 『어린이』 잡지를 내기 위해 얼마나 고군분투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명승투표>의 결과를 보여주지 않고 종료되었지만, 『어린이』 4권2호부터 1회 명승투표 결과에 등장한 지역의 이야기들이 『어린이』에 지속적으로 수록되었다. 신영철의 섬이 많은 남쪽 나라 이야기가 시리즈로 실리고, 박달성의 조선의 자랑과 더불어 특집 <조선 자랑호>로 이어지게 되었다. 1929년 1월 『어린이』 7권1호에 <13도 고적탐승말판 노는 법>이 소개되고 특별부록으로 <조선13도 고적순례말판>으로 수록되었다.

17 조선시대에 부동산 중개업자를 집주름(가쾌(家儻))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18 『어린이』 4권6호, 1926, 50쪽.



〈조선13도 고적탐승말판〉¹⁹

어린이들은 남대문에서 시작하여 조선13도의 명승지를 돌아서 백두산에 먼저 도착하면 이기게 된다. 이러한 놀이판을 통하여 어린이들은 조선13도를 유람하는 간접 체험을 통하여 조선의 지리와 공간 감각을 익힐 수 있었다. 『어린이』 잡지에서 기획한 〈명승투표〉는 어린이가 직접 참여하여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을 전국의 어린이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지면이 제공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개벽』에서 주관하고 이끌어 온 「조선문화의 기본조사」의 영향력이 『어린이』 잡지에서 〈조선명승투표〉로 이어지고 조선의 명승에 관련된 이야기를 연속적으로 소개하는데 기여하였다. 이를 통해, 어린이가 조선의 문화유산을 아끼고 사랑하여 조선의 아름다운 강산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심어 주었다. 현대의 어린이가 직접 지역의 문화를 답사하고 이해하여 아름다운 문화유산의 가치를 발견하고 탐색하는 일은 건강한 어린이문화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4. <봄내청오길>과 <어린이 선언길>

차상찬은 천도교소년회 지도부 활동을 통하여 종합 축제로 어린이날을 준비하고 기획하여 어린이가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또한, 「조선문화 기본조사」에서 수행한 지역문화답사를 『어린이』의 필자들과 협력하여 독자의 참여를 독려하였다. 이러한 차상찬의 활동을 이어받아 춘천의 도시브랜드인 ‘어린이 수도’로서의 역사문화 정체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영주는 레고랜드 개장에 따른 ‘어린이 수도’ 춘천의 대응 전략으로 외부적인 인프라로 글로벌 도시로서의 위상, 호수 주변 관광, 도심 연결축 정비, 도시관광산업의 다각화와 체질 개선을 제안하고 어린이 중심 가족문화공간 이미지 정립, 상설 어린이 창의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제안²⁰하였다. 유춘동·신성환은 춘천권 시민을 대상으로 “경춘선 춘천권의 역사와 가치, 추억과 낭만의 인문학”이라는 대주제를 기획하고 춘천 인물들의 인문정신²¹김시습, 유인석, 정약용, 김유정, 차상찬으로 경춘선 인문프로그램 발굴을 위해 지자체 및 참여기관의 긴밀한 협력과 지역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인문학 설립과 지속적 운영을 위한 기구 및 프로그램 관리를 제안²¹하였다.

강원문화재단에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강원트리엔날레’에는 작가, 키즈, 국제분야로 나뉘어 최초 3년 주기의 국제 예술제이다. 국제어린이 미술공모전에서는 전세계 미술을 사랑하는 어린이의 그림을 모집했다²².

19 「조선13도 고적탐승말판」부록, 『어린이』 7권1호, 1929.

20 이영주, 「레고랜드 조성에 따른 춘천 도심지역 연계 및 활성화 방안」, 강원발전연구원, 2013, 56~57쪽.; 「세계 10번째 레고랜드 도시 춘천, 글로벌 어린이수도로의 전환」, 『강원연구원보고서 RIG 브리프』25호, 2022, 1~11쪽.

21 유춘동·신성환, 「옛 경춘선 폐역의 레트로 인문도시」, 『한국연구』9, 한국연구원, 2021, 88~89쪽.

22 2023 강원키즈트리엔날레는 <내가 꿈꾸는 강원도 특별 자치도-10년후의 강원특별자치도는 어떤 모습

2021년부터 춘천 국제 어린이 그림 교류전이 시작되었다. <춘천 국제 어린이 그림교류전>은 그림을 통해 미래 세대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내·외 도시와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²³ 강원도와 춘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 어린이 그림전’은 1928년 『어린이』가 주최하고 『동아일보』가 후원하여 개최된 ‘세계아동예술전람회’에서 그 연원을 찾아볼 수 있다.

‘세계아동예술전람회’는 『어린이』가 주최하고 『동아일보』가 후원하여 1928년 10월2일부터 8일까지 이루어졌는데 오랜 시간 준비하여 흥행에 성공하였다. 준비위원 명부 총무부에는 방정환, 김기전이 정리부에 차상찬이 속해 있다. 『개벽』 1925년 1월호에 『어린이』 신년호의 주요 내용을 광고했다. 광고에 소개된 『어린이』 신년호 목차에는 ‘세계아동작품모집발표’라는 문구가 들어있었다.

자라나는 조선 소년소녀의 속에 품어있는 여러 가지 재주는 곧 장래의 조선을 아름답게할 밑천입니다.

그러나 이때까지의 조선 소년소녀들은 그 타고 나온 천재^{天才}를 얼마나 짓밟히고 꺾히고 썩히고 하였습니까…… 이제 우리는 오래 짓밟히고 놀려온 그 귀엽고 어린짝에 물주고 복돋우기 위하여 오는 5월에 널리 세계 각국의 아동작품을 모아 전람회를 열기로 하였습니다. 영국, 미국은 물론이요, 독일, 러시아에 이르기까지의 각국 소년작품은 조선의 여러분에게 많은 참고와 자극을 주는 것인 줄 믿고 많은 시간과 금전과 힘을 써가면서 이 일을 시작하기로 한 것이니 조선의 소년소녀 여러분도 지지 않도록 좋은 그림과 좋은 수공품을 많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일까?)로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공모전을 진행 중이다. 강원문화재단 홈페이지 참고. <http://gwcf.or.kr/ko>

23 『8개국 아이들 참여 ‘국제 어린이 그림 교류전’ 개최』, 『강원도민일보』, 2021년 7월 26일자.

- 그림은 남의 것이나 책에 있는 건을 보고 그린 것은 못 씁니다. 무엇이든지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손으로 처음 그린 것이라야 뽐습니다. 그림 위에 주소, 씨명을 쓰지 말고 그림 옆에 종이를 남겨서 똑똑히 써야 합니다.
- 수공품은 목공, 토공, 여자편물, 자수수놓은것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 잘된 것은 추려서 1등, 2등, 3등, 4등, 5등 수백 명에게 특별상을 드립니다.
- 기한은 3월 10일까지 그 안에 어느 때든지 보내면 받습니다.²⁴



세계아동예술전람회에서는 예정과 같이 지난 4일 오후 4시부터 천도교당 안에서 배재음악대의 음악으로 여흥을 시작하여 삼광유치원의 표정유희와 천도교소년의 하모니카 독주와 무도가 있었으며 소파 방정환씨의 <양초의 귀산>이란 동화가 있어 매우 성황을 이루었더라. (여흥의 광경)²⁵

전세계 어린이들이 직접 만든 작품과 그림을 수집하였는데, 아동전람회를 위해 1925년부터 준비가 시작되었다. 특히, 어린이들이 그린 자유화는 다른 것을 보고 그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자기가 보고 자기의 손으로 ‘처음’ 그리는 것을 강조하였다.

현재 강원도와 춘천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제 어린이 그림 공모전>의 내

24 『어린이』 3권 2호, 1925. 뒷표지 안쪽 광고.

25 『세계아동예전의 여흥 세계아동예술전람회에』, 『동아일보』, 1928년 10월 6일자.

용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국제어린이미술공모’의 역사성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1928년 행사를 참고하여 어린이 문화의 다양성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세계아동예술전람회’에서는 어린이들의 작품 전시뿐만 아니라 함께 즐길 수 있는 여흥이 마련되었다. 노래, 유희, 춤, 동화 등을 통해 어린이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최근 춘천에서 이루어진 어린이날 행사를 살펴보면, KT&G 상상마당에서 가족과 어린이가 함께 음악, 예술, 자연의 가치를 찾아가는 시간으로 야외 공연장의 음악, 키즈 매직쇼, 시네마, 백일장과 사생대회가 열렸다. 춘천시는 강원일보사와 함께 어린이날 행사를 진행하였다. 우천으로 모두 실내에서 진행되었는데, 개막행사, 마술쇼, 버블쇼, 어린이뮤지컬, 애니메이션 상영, 행운권 추첨 등을 마련했다. 소방안전체험, 경찰체험, 과학부스, 체험부스VR, 각종이벤트, 야외무대, 모험동산, 캐릭터쇼, 푸드트럭, 휴식존 등이 마련되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어린이날은 어린이를 위한 공연과 체험 부스가 주를 이루고 있다. 차상찬이 천도교소년회와 기획한 어린이날의 의미와 프로그램을 상기하며 춘천의 ‘어린이 수도’ 도시 브랜딩을 구성할 수 있다.

초기 어린이날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선언서를 거리 곳곳의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서 알리고, 함께 여흥을 즐기는 일이었다.

천도교 소년회에서는 매 토요일마다 오후 7시에 <동요동화회>를 열어 왔는데 오는 십사일토요일 오후 7시에도 동요동화회가 있을 터인데 종래에는 16세 이하의 소년소녀에게 무료로 입장시켜 그 결과 많은 소년들이 와서 혼잡을 이루어 장내의 질서를 유지할 수 없었으므로 이번에는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사이에 무료입장권을 경운동 천도교 청년회 사무소에서 일반 소년에게 배부하여 그 입장권

을 가지고 들어오게 할 터이라더라.²⁶

또한, 천도교 소년회는 동화회를 중심으로 어린이를 모으고 동화를 함께 읽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소년운동의 구심점을 삼았다. 그 결과, 『어린이』 잡지에 수록된 동화작품들은 어린이에게 흥미를 주고 어린이를 결집하는 힘을 발휘하였다. 어린이날과 ‘세계아동예술전람회’에서 기획된 다양한 어린이 프로그램 내용과 취지를 살피고 이를 현대의 어린이날과 어린이 교류문화에 반영한다면, 어린이가 주체적으로 자신들의 문화를 만들고 즐길 수 있는 마당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어린이날의 의미와 취지를 이어받아, <봄내청오길과 어린이선언길>²⁷을 구성하였다. 봄내청오길은 차상찬이 춘곡 형에게 보낸 편지를 바탕으로 춘천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적인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봄내청오길>은 공지천²⁸ 차상찬 동상에서 출발하여 현재 리모델링 중(2023년 10월 30일까지)인 춘천시립청소년도서관, 레고랜드, 춘천인형극장을 연결하는 길이다. 춘천시립청소년도서관에 청오차상찬문고실²⁹을 만들어 자료를 전시하고 차상찬

26 『천도교소년 동화, 동요회 오는 14일에』, 『조선일보』, 1925년 2월 13일자.

27 <차상찬과 함께 걷는 봄내청오길과 어린이선언길>은 가천대학교 지준혁 학생과 함께 차상찬의 사상과 어린이날의 의미를 고려하여 이미지를 제작하였다.

28 현재, 춘천시는 모두 8개의 봄내길을 운영하고 있다. 그 가운데 4코스 의암호 나들이 코스인 <서면 수변공원 → 눈썹나무 → 독길 → 성재봉 → 마을길 → 오미나무(경찰충훈탑) → 신매대교 → 호반산책로 → 소양2교 → 근화동배터 → 공지천 → 어린이회관 → 봉황대>는 논문에서 기획한 <봄내청오길>과 공지천과 어린이회관이 겹치는 부분이다. 이 구간은 14.2km로 5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봄내청오길>은 춘천의 ‘어린이 수도’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 선언길과 차상찬의 기념비적인 공간을 중심으로 어린이가 참여하여 걷는 것으로 특화된 길이다. 4코스 내에서 <봄내청오길>이 함께 운영될 수도 있기에 앞으로 여러 가지 방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http://www.bomne.co.kr>.

29 차상찬 문고가 춘천 옥광산 달아실에서 데미안으로 이전되었다가 현재 유지가 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춘천시립청소년도서관에서 춘천의 문화자산으로 복원하여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춘천시립청소년도서관의 명칭을 춘천시립청오차상찬도서관으로 개칭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에게 청오의 사상을 심어주기 위한 상징적 의미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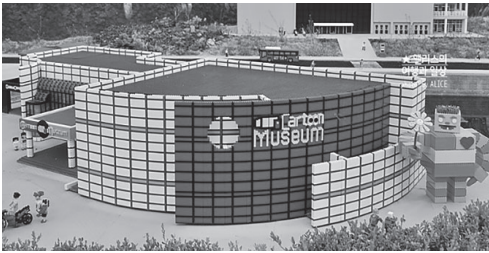
〈차상찬과 함께 걷는 봄내청오길〉

의 잡지 정신을 계승한다면, 춘천의 자랑스러운 문화인물로서 강원도를 사랑하고 식민지 현실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글로써 싸운 고귀한 행적을 본받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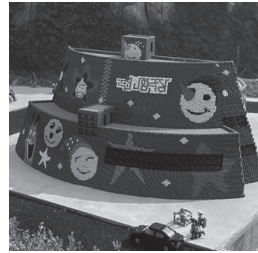
춘천시립청소년도서관의 〈청오차상찬문고실〉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귀중본 문고실을 참고하여 기획해 볼 수 있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귀중본 문고실은 『어린이』 잡지와 아동문학에 힘쓴 윤석중과 마해송 등 문인들의 문고를 직접 열람해서 보고 연구할 수 있어, 집필 당시 작가의 사상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독자들이 작품을 통해 작가와 소통할 수 있는 장소가 된다. 공지천의 차상찬 동상과 함께 춘천시립청소년도서관 〈청오차상찬문고실〉이 설립되어 차상찬이 집필한 잡지와 책들을 만나고 지역의 문화적 자산을 활용하고 주변의 공공시설과 협력하게 된다면, 춘천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차상찬의少年운동정신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레고랜드의 <미니랜드>에는 각 나라의 랜드마크가 설치되어 있다. 서울의 청와대, 인왕산, 창의문, 혜화문과 부산 항구 도시의 특성을 살려 컨테이너, 화물선, 부산대교, 야구장, 제주도 구역에서는 제주 보문사, 선임교, 주상절리대와 용두암, 제주민속마을과 전통가옥이 들어서 있다. 춘천의 애니메이션 박물관, 인형극장, 중앙시장이 복원되어 있다. 앞으로 차상찬과 함께 하는 <어린이 선언길>이 미니랜드에 조성되면, 춘천이 '어린이 수도'로서의 문화적 위상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춘천인형극제에서 2022년 10월 4일부터 8일까지 방정환 선생의 일대기를 그린 <불 켜는 아이>가 공연되었다. 앞으로 춘천인형극제에서 차



애니메이션 박물관



인형극장



춘천중앙시장³⁰



차상찬 레고모형³¹

<레고랜드 내 미니랜드의 춘천 관련 구조물>

상찬의 일대기를 그린 인형극을 상설화한다면, 차상찬의 생애를 쉽고 재미있게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어린이선언길〉은 차상찬 동상을 시작으로 춘천시립청소년도서관 〈청오차상찬문고실〉에서 책을 읽고, KT&G 상상마당으로 가는 길이다. 어린이날이 처음 시작되던 1922년 5월1일 〈어린이선언길〉의 의미를 되살려 차상찬과 함께 걷는 〈어린이선언길〉을 구성하였다.

어린이날 선언문 깃발과 풍선을 들고 거리거리를 행진하면서 어른에게 드리는 글과 어린이동무에게 글을 나누어 주었던 행사를 복원하여 차상찬 동상에서 춘천시립청소년도서관 〈청오차상찬문고실〉과 KT&G 상상마당까지 선언문을 돌리면서 행진하면, 어린이날의 의미를 되살릴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어린이날 행사에 음악, 춤, 마술과 더불어 어린이에게 필요한 동화와 동극 등의 스토리 공연을 추가하여 어린이 문화예술이 꽃피우길 기대한다. 2023 애막골 문화의 거리에서는 〈위커맨〉, 〈아띠인 윈더랜드〉, 〈저스트 히어로즈〉, 〈찰리의 여행가방〉, 〈뽀뽀이의 조금 행복한 선물〉, 〈우울해도 괜찮아〉³² 등의 공연과 스토리가 어우러진 다채로운 볼거리가 진행되었다. 〈어린이선언길〉행진과 지역 공동체의 문화공연이 조화롭게 구성이 되면 어린이날이 종합 축제의 장으로 확장될 것이다. 춘천 시민과 춘천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춘천의 자랑스러운 인물 차상찬의 소년운동 행적이 반영된 〈봄내청오길과 어린이선언길〉을 걸어보면서 춘천에 담긴 ‘어린이 수도’로서의 문화적 가치를 경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0 애니메이션 박물관, 인형극장, 춘천 중앙시장 이미지는 레고랜드 홈페이지 참고. <https://www.legoland.kr/>

31 차상찬을 상징하는 모자와 지팡이를 활용하여 풍납중학교 2학년 고성준 학생이 레고 모형을 제작하였다. 레고 미니랜드에 차상찬과 〈봄내청오길과 어린이선언길〉이 조성되길 기대한다.

32 춘천과 사람들 <http://www.chunsa.kr/news/articleView.html?idxno=55324>

현재 춘천은 수려한 호반 도시로서의 자연경관과 KT&G 상상마당, 인형극장, 애니메이션 박물관, 국립춘천어린이박물관, 춘천시립청소년도서관, 레고랜드 등을 통하여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최적의 문화 환경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본고에서는 춘천의 지역브랜드인 ‘어린이 수도’로서의 위상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차상찬의 소년운동정신을 계승하여 <봄내청오길과 어린이선언길>을 구성하였다. 1922년 나라를 생각하며 어린이 존중에 앞장선 ‘어린이선언’의 의미를 되살려 지역공동체가 <봄내청오길과 어린이선언길>을 걸으면서 지역의 자연경관, 역사문화, 놀이문화를 접목하여 어린이가 행복한 춘천 ‘어린이 수도’로서의 도시 브랜딩을 조성해 나가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개벽』, 『어린이』

청오차상찬 기념사업회 편, 『차상찬 전집』 1-7, 강원도민일보 출판국, 2018~2022.

2. 단행본 및 논문

유춘동·신성환, 『옛 경춘선 폐역의 레트로 인문도시』, 『한국연구』 9, 한국연구원, 2021.

서구원·배상승, 『도시마케팅』, 커뮤니케이션스북스, 2005.

이수태, 『도시브랜드 디자인이 국가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과 도시브랜드 디자인 방향에 관한 연구』, 『브랜드디자인학연구』 6 (1), 한국브랜드디자인학연구학회, 2008.

이영주, 『레고랜드 조성에 따른 춘천 도심지역 연계 및 활성화 방안』, 강원발전연구원, 2013.

_____, 『세계 10번째 레고랜드 도시 춘천, 글로벌 어린이수도로의 전환』, 『강원연구원보고서 RIG 브리프』 25호, 2022.

정현숙, 『차상찬의 이동과 연대의 시간—『개벽』의 ‘조선 문화의 기본 조사’를 중심으로』, 『구보학보』 24, 구보학회, 2020..

3. 기타자료

강원도민일보 <https://www.kado.net>

강원문화재단 <http://gwcf.or.kr/ko>

동아일보 <https://newslibrary.naver.com>

레고랜드 <https://www.legoland.kr>

봄내길 걷기 여행 <http://www.bomne.co.kr>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

세이브더칠드런 <https://www.sc.or.kr/childrenact>

연합뉴스 <https://www.yna.co.kr>

조선일보 <https://newslibrary.naver.com>

춘천과 사람들 <https://www.chunsa.kr>

춘천시청 <https://www.chuncheon.go.kr>

Abstract

**ChunCheon's of Children's Capital City Branding Strategy through
the Succession of Cha Sang-chan's Juvenile Activities**

Kim Kyung-hee*

In 2022, Gangwon-do declared Chuncheon as the Children's Capital. Chuncheon has established itself as a Children's capital with the opening of Legoland in 2022, KT&G Sangsang Madang, puppet theater, animation museum, and Chuncheon National Children's Museum. This paper aims to explore Cha Sang-chan's juvenile activities in order to establish Chuncheon's historical and cultural identity as well as its spatiality as a children's capital.

In this paper, I proposed an idea of experiential path, in which Cha Sang-Chan's juvenile activities, such as the Children's Day declaration, the World Children's Art Exhibition, and the scenic spot voting plan, are inherited and preserved. By inheriting and modernizing the spirit of Cha Sang-chan's juvenile activities through <Bomnaecheongo-gil> and <Children's Declaration Road>, Chuncheon will establish its historical and cultural identity as a Children's capital and be reborn as a city where children's culture blooms.

Keywords Cha Sang-chan , Boys' Movement, ChunCheon, Children's City Branding,
Bomnaecheongo-gil, Children's Declaration Road, network

이 논문은 2023년 9월 15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3년 9월 25일부터 10월 1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3년 10월 15일에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 Gachon University.